

## 다도해 비경에 황홀한 낙조…힐링휴가지로 딱이네



지난 8일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 물양장 주변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드론으로 상공에서 찍은 청룡마을 앞바다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드넓은 가을 하늘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는 한없는 위안과 휴식을 안겨준다. 수평선 너머로 곧게 뻗은 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야산에 올라 병풍처럼 둘러쳐진 울창한 숲을 한눈에 내려다보면 막혔던 속은 뻥뚫리고 세상사에 주름진 마음도 곧게 펴질 것이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을 앞바다는 시름을 달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에 안성맞춤인 마을이다. 청룡마을은 가자미·농어·전복 등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을거리도 풍성, 전남 도내 섬 지역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32가구가 모여 사는 청룡마을은 신안군과 접경지역이다. 사방신(四方神) 중 청룡이 지켜주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 청룡마을이다. 진도 청룡마을 앞바다엔 손가락 밭갈림인 양덕도·저도·가사도·가사혈도·광대도·주지미 등 크고 작은 유·무인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내년부터 청룡마을 앞바다에서 출발, 양덕도·저도·사자도·가사혈도 등 8개 섬을 거쳐 되돌아오는 관광선 운행이 재기될 전망이다. 이 관광선이 운행된다면 서남

### 32가구 100여명 거주

### 내년부터 섬 관광선 운행

### 앞바다는 국내 3대 냉수대

### 개매기 체험 年 1만명 찾아

해 면바다를 가지 않고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풍광을 해상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신안과 접경지역인 청룡마을 앞바다는 냉수대지역이다. 국내에서 냉수대는 진도 해역과 충남 태안, 인천 배령도 해역 등 세 곳이다. 그 가운데서도 진도해역이 여름철 수온이 섬씨 23도를 넘지 않는 등 가장 낮다. 더운 여름철에도 수온이 23도를 넘지 않아 어류분사는 물론 적조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청룡마을 어민들이 잡은 가자미를 '서촌(서쪽 마을어촌)' 가자미'라고 부른다. 전국 어시장에선 '서촌가자미'라고 하면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지갑을 열 정도다.

가자미는 물론 농어·전복(양식)·다시마(양식) 등은 다른 지역의 해산물보다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냉수대인데다, 개펄이 풍부하고 깨끗한 친환경지대이기 때문.

청룡마을의 또 다른 재미는 마을 뒷산 산책로다. 야트막한 산이라고 알아차렸다가 큰 코 다치기 쉽상, 1시간 코스인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가보면 소나무 등 군림을 만나볼 수 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등은 이 마을의 전설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산행으로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댈 틈이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뿐어내는 신선한 짠내음이 코끝을 찌르는데, 절로 기운이 난다. 산에서 바라본 앞바다의 크고 작은 섬들은 마치 동화 속 스며프들이 사는 버섯집들을 연상케 한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섬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혹여 작은 스며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설렘인가는 벌길을 붙잡는다.

버섯 집들 사이로 가라앉는 낙조는 그 경관으로도 신비로운 충격을 준다. 섬과 섬 사이로 홍조 띤 둑근 얼굴을 감추는 낙조를 바라보고 있자면 예전에 일몰을 지켜봤던 그 선인가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계절마다 낙조의 위치가 바뀌는 탓이다. 단골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을 때마다 산을 찾아 일몰의 비경을 자신의 카메라 속에 담기 바쁘다.

청룡마을은 조그마한 포구에 가오리 등 각종 생선을 낚아 올리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녹음이 가득 해 해양수산부 선정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꼽히는 등 일년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개매기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최소 1만 명 이상이다. 개매기는 갯벌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갇히도록 하는 전통 고기 방식으로, 체험객들은 그물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 물이 빠진 갯벌 위 그물에 끌린 송어·농어·돔 등을 맨손으로 잡은 뒤 바로 회로 먹을 수 있다. 체험비는 성인 기준 5000원.

특히 이 마을 해안은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양팔 벌려 껴안는 모양새다. 개흙과 모래가 적당히 섞인 흔한 갯벌이 형성돼 있는 뒷에 바지락과 고동을 캐는 갯벌 체험도 편히 즐길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찾아오는 길

전남 진도 청룡어촌체험마을 (진도군 진도읍 청룡안길 130-12)

#### ▶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등교차로 → 녹진교차로(진도-전두, 한의 농어촌버스(약 48분) → 청용리정류장 하차(도보 2분)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동서울터미널 → 진도공용버스터미널 → 진도-전두, 한의 농어촌버스(약 48분) → 청용리정류장 하차(도보 2분)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전국 최고의 어촌마을 만들 것”

#### 김주봉 어촌계장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찾는 어촌마을로 만들어 전국의 농어촌마을로 거듭나겠습니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 물양장에서 만난 김주봉(52) 어촌계장은 향후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32가구·100여명 거주하는 이 어촌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어촌체험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냉수대지역을 끼고 있는 이 마을 개매기 행사에는 수년 전부터 해마다 최소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어민들은 전복·농어·다시마·가자미 등 수산물을 판매해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살핀 덕분이다. 이 마을에서 주로 잡히는 가자미는 관광객들의 입소문이 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가자미 잡이 철이 되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다.

마을 주민들은 이어지는 관광객들의 발길에도 즐거운 비명을 지를 법도 하지 만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전국의 다양한 어촌마을 등을 견학하면서 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마을 뒷 산책로 정비다. 이 마을은 낙조가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산책로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일몰·일출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어촌계장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전국 최고의 어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면서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마을을 찾는다면 그 만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주민 모두가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만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의 어촌마을이 됐다는 자만심에 빠지기 보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해 전국 어촌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냉수 해역서 잡힌 ‘서촌 가자미’는 부르는 게 갑

### 거친 조류서 키워낸 전복·다시마·모자반도 유명

#### 청룡마을 특산물

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 청룡마을 특산물로는 전복, 가자미, 해조류 등이 있다. 청룡마을 앞 바다에는 우리나라 몇 안되는 냉수대 지역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전복은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살이 단단하고 그 맛이 고소하며 단맛이 난다고 한다. 가자미는 ‘서촌(서쪽 마을어촌)가자미’로 전국적



청룡마을 어민이 전복양식장을 둘러보기 위해 어선에 오르고 있다.



마을 앞 개매기 체험장. 매년 1만명 이상이 찾아 체험을 즐긴다.